

제163호

1999년 4월 7일 수요일 격주 발행

우리 학교 교육부 이관 백지화

23일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학교·학생 "아직 안심못한다"

유욱준 교수 인터뷰

자연과학동 부설건물로 건립된 의과학연구소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욱준 교수를 만나 의과학센터의 앞날에 대해 들어보았다.

4

전 국민 국민연금, 석·박사생 영향은?

곧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는 국민연금.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5

우리 학교 봄맞이 풍경 스케치



봄비가 축축히 내리는 4월이다. 봄을 맞은 우리 학교 곳곳의 풍경을 스케치해 보았다.

10

우리별 3호 발사 우주 산업의 미래는



다음 달 초 인도에서 발사되는 우리별 3호 발사의 의의와 우리나라 인공 위성 산업의 현재에 대해 알아 본다.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인공위성 산업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12

우리학교의 교육부 이관문제가 백지화되었다. 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의 통폐합을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또 '과기부의 기초과학인력 양성기능의 교육부 통폐합도 백지화한다'고 밝혀, 우리 학교의 교육부행을 백지화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출연연구소들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되면서, 과학기술부에는 우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원자력연구소 2곳, 한국과학재단 등 소수의 기관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또 다시 정부조직개편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경우 교육부 이관에 대한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이라는 것이 학우들의 중론이다. 그에 따라 우리 학교의 위상에 맞는 과학기술전문부처로 자리를 옮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교육부 이관이 백지화됨에 따라 비대위에서는 해체식과 보고대회를 가졌다. 지난 26일 노천극장에서 열린 비대위 보고대회는 여러 학우들이 모여 다과 등을 나누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비대위 위원장으로 있었던 길준모(재료박사)학우는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일단락되었지만, 과기원 문제는 해결된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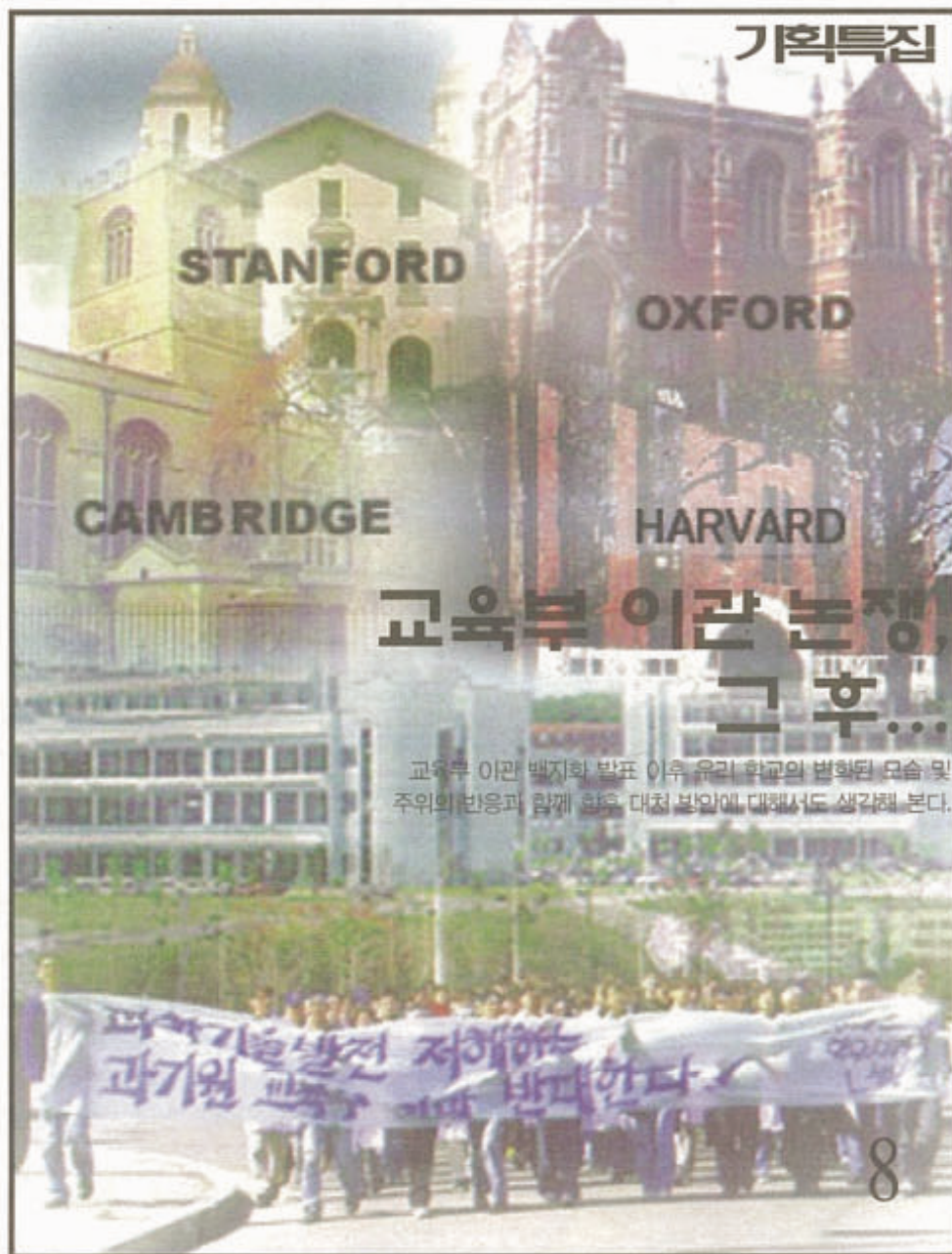
지난 3월 19일 학생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모습. 교육부 이관은 백지화되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니라고 본다"며, "앞으로 과기원의 위상강화와 발전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태에 대한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기원 학우들이 우리학교의 현실을 바로 보고, 내용적으로 성숙해 져

길 바란다"고 학우들이 더욱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동희 기자(empire@cais.kaist.ac.kr)

중간고사 관계로 다음호는 5월 5일에 발행됩니다



교육부 이관 논쟁 그 후...

교육부 이관 백지화 발표 이후 우리 학교의 변화된 모습 및 주위의 반응과 함께 한우 대처 방안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8

14대 총학생회 선거

김태균·전창수 후보 당선

지난 3월 25일 8시부터 19시까지 치뤄진 제 14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태균·전창수 후보가 총유권자 2418중 1242명이 투표해 51.4%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72.9%(906명), 반대 24.8%(308명), 무효 2.3%(28명)으로 당선되었다.

'학우사랑 총학생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입후보한 김태균·전창수 후보는 학생들을 상대로 배포한 홍보전단과 본지와와의 인터뷰, 공청회 등을 통해 과·반 자치체계 확립, 지속적인 한총련 활동, 북한과의 과학기술 교류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예전의 총학보다도 학우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투표과정에서도 허술함이 드러나는 등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총학이 정치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공약이 예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25%의 반대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5면)

이번에 당선된 김태균·전창수 학우는 지난 1일 매점에서 각 자치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해오름식을 갖고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하였다.

김정욱 기자(rurichan@cais.kaist.ac.kr)

창간/ 1988년 2월 1일
발행인/ 최덕인 인쇄인/ 김규석
주간/ 고희환 편집장/ 홍성훈

KAIST

과기원신문
The KAIST Times